

포천시립민속무용단장 10월초 公開 모집

포천시, 조례 입법예고 조례개정 후 공모

포천시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을 포천시립민속무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10월 초에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7월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중에 포천시의회에서 조례개정 후 단장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속예술단을 민속무용단으로 하고 시립예술단의 민속무용단과 합창단의 정원을 단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며 각 예술단의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또한 단원에 대하여 각 예술단장의 추천에 의한 것을 각 예술단별로 소정의 정원을 거쳐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부지휘자, 부단장, 기획홍보팀장, 반주자, 부장 등에 대하여 소속 예술단장의 추천을 받던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예술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 출연 시 출연료의 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하고,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단장과 홍보팀장은 상임으로

하고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는 이중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립민속예술단장의 경우 2003년9월1일 임명돼 만 5년 동안 상임으로 대우를 받았으나 입법예고된 조례가 공포되면 비상임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

한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김용기 소장은 "포천시립민속예술단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는 조례에 따라 조만간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10월초에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립민속무용단 공연 모습

‘韓國의 북소리 자금성을 울리다’

국수호 디딤무용단 베이징올림픽 초청공연

건국 60년을 축하하는 북소리가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紫禁城)에서 울려 퍼졌다.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8월15일 밤 자금성 내 중산음악당(1400석)에서 천무를 공연했다. 중국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궁

(72만㎡)에서 한국 공연이 펼쳐지는 것은 처음이다. 국수호 디딤무용단은 한국 공연단체로는 유일하게 베이징올림픽 기간 문화행사에도 초청됐다. 중산음악당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스타 테너가 노래했던



국수호 디딤무용단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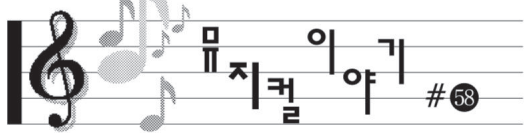
무대다. 천무는 북의 대합주(天鼓大合奏)를 비롯해 안무가 국수호가 지난 30여 년 동안 만든 작품들 중 하늘과 관련된 13편을 재구성한

공연이다. 그 가운데 7편은 북이 들어가는 춤이었다. 무용수들은 중간중간 '얼~수!' '합!'을 내뿜으며 리듬을 가다듬었고, 관객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소리를 보냈다.

1980년대에 선보인 북의 대합주는 국수호 북복음의 핵심답게 하늘에 고하는 인간의 의지, 맥박과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국수호 단장은 "건국 60년이 되는 날, 중국의 자존심 자금성에서 한국인의 몸짓과 소리를 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의 일라이자(Eliza)와 신분상승

신분상승은 계급이 존재했던 근대이전까지 인간에게 최고의 목표였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신분상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경제적 면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문제 대부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기도 한다. 물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전이라는 면에서 신분상승은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층계급의 여자로서 태어나서 신분상승을 이룩한 정 안경을 비롯해 장녹수 등 몇몇 왕실의 후궁들은 정3품에 오를 정도로 상당한 권력을 잡은 여인들이었다. 요즘시대에 여자 입장에서 신분상승이 될까, 돈으로 따지면 없는 집에서 있는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 신분상승인가. 자수성가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 여자의 신분상승은 결혼으로 인해 얻어지기도 한다. 대중적인 소재를 많이 다루는 TV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난한 집 여자로서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재벌 집 아들과의 결혼에 골인하는 플롯은 약간의 등장인물만 바뀔 뿐 지금도 단골 소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분상승은 곧 사회적 명망을 얻는 뿐만 아니라 돈과도 직결되어 있어 남자는 여자를 죽을 때까지 인생을 거는 단어가기도 하다. 영화 <프라이세스(Princess, 2006)>의 주인공 이렌도 신분상승을

위해 억만장자를 찾아다니는 여성인데 내 사정에 가난한 남자는 없다고 외치는 돈 많은 남자에게 작업을 거는 인물이다. 고급 호텔에서 밤 먹고 스위트룸에서 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은 그녀는 매일 작업을 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한편으로 인기 연예인이 된 후 신분상승을 위해 과감히 인기를 버리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들어가는 사례도 많다. 그렇지만 신분상승을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스 코리아나 연예인 출신으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파경을 맞았고 신분상승을 위한 성 상냥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분상승이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의 여주인공 일라이자(Eliza)의 경우는 좀 색다르다. 재벌가와 인연을 맺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고시에 합격한 것도 아니다. 물론 요즘 길거리 캐스팅 되어 스타가 된 배우나 가수들이 있지만 일라이자의 경우는 한 언어학자와 그의 친구의 내기로 인해 영국 사교계의 숙녀가 되어 신분상승을 한 특별한 경우이다. 런던의 유명한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극장 앞에서 빈민층 여인 일라이자는 관객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에 거칠고 품위 없는 말투로 손님들에게 꽃을 팔고 있다. 언어학자인 히긴스 교수와 그의 절친한 친구인 퍼커링

대령은 이 하층계급의 여인을 6개월 안에 사교계의 요조숙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내기를 건다. 히긴스 교수는 일라이자를 본격적으로 교육시키고 그 과정에서 히긴스와 일라이자 간의 사랑도 싹이 트며 결국 일라이자는 사교계의 신데렐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하층민 언어(일명 런던 코크나 Cockney)를 쓰는 일라이자를 상류층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시키는 언어훈련은 대단히 흥미롭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희곡 피그말리온(Pygmalion, 1913)을 토대로 만든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는 원작에 충실한 뮤지컬이며 지성과 재치가 배합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완벽한 작품(the perfect musical: New York Times review)'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마이 페어 레이디>는 물론 뛰어난 작품성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1950년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타고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반열에 올랐다. 1950년대 브로드웨이는 뮤지컬 코미디보다 완성도 높은 뮤지컬 플레이가 양산된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텔레비전이 호황을 누리면서 브로드웨이는 예술지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의 영혼이 깃들었다. 하지만 작사가 알란 제이 러너(Alan Jay Lerner, 1918~1986)와 작곡가 프레데릭 로(Frederick Loewe)는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2세의 그늘을 뛰어넘어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로 더욱

완벽한 북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 주며 1950년대 뮤지컬계를 명망의 시대로 만들어주었다.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는 브로드웨이에서 개막된 이래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2,717회라는 역대 뮤지컬 최고의 공연기록을 세웠다. 런던 공연도 2,281회 공연이라는 당시 최장기 흥행기록을 세웠다. 우리에게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1965)>으로 잘 알려진 여배우 줄리 앤드류스(Julie Andrews, 1935~)는 이 뮤지컬의 일라이자 역으로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1964년에 만들어진 영화 버전에서는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에게 주연의 자리를 물려주는 했지만 줄리 앤드류스의 일라이자는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가 올해 한국에서 초연된다. 그동안 엄청난 제작비에 투입된 8월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꼭 보라고 권하고 싶지만 비싼 관람료가 부담스럽다면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를 추천하고 싶다. 국내에 DVD로 출시되어 있는데 의외로 의하면 2008년 새 시즌 리메이크 판도 아니 기대된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44)

조각가 김광우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동인대학교 예술대학장,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국제바다 미술제 위원장, 63-73년 국전 입선 10년의 각고 끝에 74년 특선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미술계(조각전공·설치미술)의 핵심과 같이 나타난 내 고향 포천 출신의 미술가가 바로 조각가 김광우 교수이다. 미술평론가 김성화는 그의 평에서 "조각가 김광우의 작품은 형상과 역학, 형상을 창출(創出)해내는 이미지의 선택과 사물병치(事物並置)의 감각(感覺) 등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인위성이나

우연성이라는 방법이 보다 깊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내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의 구체화된 형상의 제시는 참신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라고 평하고 있다. 그 밖에 미술평론가 최태만, 이재인, 비비안 레이너 등이 자연+인간의 우연한 만남에 천착하되 자기모방에 함몰하지 않고 폭넓게 발전하여온 미학적 독창성(美學的 獨創性)을 극찬하고 있다. 대표작 자연+인간, 자연+인간+우연 브론즈 오브제 등 6점의 작품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히드스 강가에 버려진(언제 버려지지도 모르는) 사고 차량의

엔진부분, 하이힐을 신은 깨어진 마네킹 등이 조화 있게 자연과 만나고 또, 김광우의 예술적 영혼이 불어넣어지면 그 영혼이 작품 속에서 살아숨쉬고 감상자를 감동시킨다. 비비안 레이너는 뉴욕 타임즈 기자로(미술평론가) 한 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다섯 시간이나 작품감상에 몰입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한다.(미국 뉴욕 히드스 강가 전시회장) 내 고향 문화체육공원(정성)의 흥분감과 의정부시 흥분감과 김광우 교수 작품이다. 부산은 김광우 교수의 제2의 고향이다. 부산의 바다 미술제를 통해 제2의 고

향 부산을 빛낸 인물이다. 부산 경찰청장, 동의대 상경대학장도 포천인으로 부산이 잊지 못하는 인물이다. 지금은 정년퇴직을 모두 하였지만 3년전 만해도 부산에 사는 포천인들이 김광우 교수와 함께 모여 포천에 대해 얘기하고 향수를 달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지금도 고향 신변면에서 작업실에 붙여 미술 대작을 제작하고도 하고 포천 조각공원에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모습에서 참 포천인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형편이 어쩔지는 알 수 없으나 김광우 조각공원이 만들어져 부산이 아닌 포천에서 김광우 교수의 마지막 노숙한 위대한 작품이 설치되어 김광우의 예술세계를 연구하려 오는 예술인들이 차고 넘치게 하면 어떻게? 유명 텔런트 못지 않은 첨단을 걷는 시대정신이 깃든 젊은 조각가들에게 존경받는 김광우 교수라면 놀랄 것이다.

韓國의 선비정신 · 111

내게는 모셔야 할 부모도 없으니 차라리 대신 죽겠소



리주홍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유진향이 선전관(宣慰官)으로 있을 때였다. 그날 대궐에 들어가 숙직하였는데 영조38년(1762)에는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날 밤, 영조가 숙직하는 선전관을 부르라고 명하였다. 유진향이 명령을 받들어 들어가니 임금의 커다란 칼 하나를 하사하면서 말했다. "들건대 여염집에서 아직도 술을 많이 빚는다고 한다. 너는 이 칼을 가지고 나가 사흘 내로 술 빚는 사람을 반드시 잡아들이도록 하라. 만일 잡아들이지 못하면 네 머리를 대신 바쳐야 할 것이다."

그는 어명을 받들고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디에 가서 술 빚는 자를 잡아와 할지 난감하기만 하였다.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고문에 빠져 있자 아내가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아내가 물자 유진향은 펄쩍 뛴 생각이 떠올랐다. 유진향은 시치미를 떼고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것은 당신도 익히 알 것이요. 술을 마시지 못한 자가 오래되었으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요."

유진향이 물레 뒤를 따라가니 아내 한 초가집으로 들어가 술을 사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다. 유진향은 얼른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사온 술을 달게 마시고 다시 사오게 하였다. 아내가 또 그 집에 가서 사가지고 왔다. 이번에는 유진향이 술병을 차고 일어나 아내가 괴이하게 여겨 깨닫을 뻔했다. "이 밤중에 갑자기 어디를 가십니까?" "이 귀중한 술을 어찌 나 혼자 마시겠소? 친구와 함께 마시려고 그러요." 유진향은 곧 집에서 나와 아가 보아 두었던 술집을 찾았다. 그 집에 들어서니 한 칸막이 안 되는 누추한 집이라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한 선비가 들어와 불을 밝히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유진향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진향이 대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명을 받들고 왔소."

그러면서 그는 허리에 찬 술병을 내놓으며 말했다. "이 술은 이 집에서 산 것이요. 이미 나라에서 금주를 명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요." 선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법을 어겼으니 어찌 벌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인사를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유진향이 허락하자 선비는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다. "제가 이미 선비는 풀어주실지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어머니는 끝내 제 말을 듣지 않고 술을 만들어 팔았습다. 이제 소자는 재빨리 되었으니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목을 놓아 툭툭하며 말했다. "내가 물레 술을 빚는 것은 재물을 탐내서가 아니라 자식을 굶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니 이를 짐차 어찌하겠습니까? 선비의 처가 그대 집에서 깨어나 사태를 알아채고는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달래며 말했다. "이미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다만 내게에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은 후 당신은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어머니를 봉양해 주시오."

모두 내오자 유진향은 선비와 함께 진탕 술을 마셨다. 그러고는 술병을 모두 깨뜨려 그 조각들을 뜬에 붙였다. 술병 조각을 모두 뜬고 나자 유진향은 임금이 하사한 칼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서 유진향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은 임금이 정한 마지막 기한이었다. 그가 대궐로 들어가 기만히 처분을 기다리고 있자 임금이 물었다. "술을 빚은 자를 잡아왔는가?"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말했다. "그럼 네 머리를 내놓겠다는 것이냐?" 유진향은 영드려 아무 말도 못하였다. 결국 그는 제두도로 귀양을 떠났다.

그후 10여 년이 지나 그는 복직되어 초계군(巢縣) 수령이 되었다. 그는 수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 갑자기 암행어사가 출현하여 여러 사람을 잡아들이고 마침내 형장을 배풀려고 하였다. 유진향이 문뜩으로 살펴보니 암행어사는 바로 술을 빚어 팔던 선비였다. 유진향은 재빨리 뛰쳐나가 마당에 엎드렸다. "이사또께서는 이 몸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그대를 어찌 알겠소?" "지체히 보십시오. 옥시 술을 빚어 팔다가 선전관에 발각되어 함께 술을 마시며 칼을 받았던 일을 기하고 있습니까?"

그제야 암행어사는 유심히 유진향을 살펴보았다. "그대의 선전관이 바로 저입니다." 어서는 급히 일어나 유진향의 손을 잡고 눈물을 내뿜으며 울리며 말했다. "바로 내 인신시구려." 어서는 곧 형장을 차우고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였으며 밤이 새도록 그와 어울려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 훗날 유진향은 벼슬이 봉제사까지 이르렀다. 유진향(柳鎭衡) ~1801년(순조 1), 1720년(숙종 46) ~1801년(순조 1), 한생각이 들어 불었다. "어머님의 충구가 어떻게 되었소?" "일흔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없소?" "아직 없습니다." 유진향이 탄식하며 말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지구려. 나는 두 아들이 없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도 없으니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소. 이제 술병을 모두 내오시오." 선비가 집 안에 감춰두었던 술병을

(111-242-197)

예/술/칼/럼

아름다운 동행

사람의 신체는 하나하나 열어 보면 요모하고 신비롭지 않은 곳이 없다. 참으로 경이롭고 한없이 소중하다. 늘 숨어 있는 몇가지 만도 공명하는 숨이 터져서 들리는 기도가 있다. 가끔 속이 울렁거리는 기도를 하여 발성을 부리게 일우지만 그것의 수고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손을 참 소중히 여긴다. 손처럼 말을 잘 듣는 것도 드물다. 쥐러낸 쥐고 괴러낸 편다. 게다가 한 번 움켜 쥔 것은 머리가 지니지기 전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일어섰다가도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라 생각이 애를 해도 금방 잊어서는 않는다. 살을 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고집도 대단하다. 사람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 사람은 손으로 편지를 쓴다. 사람은 손으로 사랑을 한다. 사람은 손으로 욕망을 감상한다. 손처럼 부지런하고 정직한 일꾼은 없다. 세상에 난 사람은 주먹이나 손바닥을 지혜롭게 사용해 왔다. 교향악단의 지휘자도 주로 손으로 지휘를 한다.

손으로 심고 손으로 거둔다.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는다. 손으로 따고 발로 땀낸다. 손의 역할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세상의 전쟁과 평화도 손이 책임을 진다. 세상을 열고 닫으며, 허물을 구족한다. 또한 신체의 발과 손은 여지없는 환상의 콤팩트. 손과 발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가까이 있다.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필연적으로 협력하고 동력하지 않는다. 또한 손의 짓거락질은 얼마나 놀라운 기능인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공학이며, 예술의 극치이기도 하다. 사람의 몸짓은 여러 갈래다. 손짓은 부질에 대한 항거와 저항의 움직임이지만 때로는 화합과 화해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 항상 손짓은 선한 것을 찾아 품질 사냥을 떠난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못 닿지 않거나 궤도 이탈자로 지목된다. 반대로 발길질은 진리와 자유를 압박한다. 발짓은 손짓을 따라가며 시간의 흔적을 새기고 손은 그 역사를 기록해 왔다. 그레 불행한 시대에는 손에 수갑을, 발

에는 족쇄를 채웠다. 손짓은 미래의 비전을 가르키며 태양을 따라 삼의 원리를 안내하고 인간의 길을 지시한다. 발은 그 해답을 새긴다. 발은 땅을 밟고 살지만 손은 하늘을 떠날 새이다. 이 땅의 정인들 역시 살아다수가 손으로 작품을 한다. 항상 손과 발이 할 때 갈 때 꽃과 나비도 화목하고 밭이 울거우면 밭이 울고 산새와 같다. 손과 발이 따로 놀면 육신의 행동은 변태가 되고 타락을 한다. 결국 인간 문화가, 아니 인간의 예술이 실재적이 된다. 이처럼 손과 발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최고의 결과물인 만큼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의 예술은 자아 성찰이며 인간탐구에 있는 것이다. (010-3722-5052)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초대 漢詩 糾彈日本獨島侵略蠻行(규탄일본독도침략만행)



蠻行日本告明天(만행일본고명천) 野黨常存六十年(야옥상존육십년) 일본의 만행을 밝은 하늘에 고발하노니, 광복이 六十年이 지났는데 아직도 야욕이 남아있는가? 回鑿強侵殘酷事(회작강침잔혹사) 何慢領土保全權(하만영토보전권) 김경호 친목한 일들을 생각하면, 어찌 영토의 보존권을 게을리 하리요. 奸邪根性先拋棄(간사근성선포기) 醜惡貪心改悟宜(추악탐심개오선) 일본은 이제라도 간사한 근성을 먼저 버리고, 추악한 욕심위상에서 대오각성 할것을 선언하라. 國際輿論偏我側(국제여론편아측) 奉遵正道後孫傳(봉준정도후손전) 국제간의 세론도 우리에게 기울고 있는데, 정도를 받들고 쫓아서 후손들에게 전함시다.

錦若 楊載昌 前 포천향교 전교